



“나눔문화 사회에 널리 퍼졌으면”



대원정사 김범준 상임법사(왼쪽)가 6월9일 본사 김광삼 사장에게 나눔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

대원정사, 본사에 나눔의 손잡기 성금 1천만원 기탁 대원불교대학, 부스리기사랑회에 100만원 전달

서울 후암동 대원정사(상임법사 김범준)는 6월 9일 본사가 진행 중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 법사는 “평소 나눔의 운동이 교계에서 확산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현대불교에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보고 수회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사 김광삼 사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들이 깃들어 있는 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원정사는 5월 한 달 동안 이웃을 위한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을 펼쳐, 남산순환도로에 2천9백1개의 연등(한등 3천원을 매달아 8백70만3천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원정사 신도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29만7천원을 본사에 전달했다. 한편 대원불교대학 학생회(회장 이지호)는 8일 (사)부스리기사랑나눔회에 결식아동돕기 성금 93만9천원을 전달했다.



대원불교대 학생회가 부스리기사랑회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호 회장은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부처님오신날 전날 일일차집을 개최했다”며 “좋은 일에 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이경림 사무국장은 “바쁜 가운데 일일차집까지 열려 모은 성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가난한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급식비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달려갑니다

‘부처를 닮은 사람들’ 봉사활동 신청

경기도 용인과 수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처를 닮은 사람들(대표 의선, 수지포교원 주지)이 본사가 발이고 있는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봉사단체로 등록했다. 의선 스님은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에 힘을 함께하기 위해 참가를 신청 한다”며 “교도와 양로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돕기 등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모든 것을 나눠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부처를 닮은 사람들은 현재 회원이 70여명이며, 용인 수지지역에서 뜻을 같이하는 봉사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31) 266-6526 김원우 기자

용천어린이에게 희망을

용천역 열차 폭발사건으로 파괴된 용천소학교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법회가 열렸다.

(사)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윌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9일 아차산 영화사 대웅전에서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북한 용천 참사 희생자 위령제(49제) 및 용천소학교 건립기금 모금법회를 개최했다.

제1부 희생당한 사람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헌헌의식에 이어 열린 제 2부 법회는 삼귀의, 경과보고, 법어, 희생자 극락왕생 발원현화, 용천소학교 건립기금 모금, 제사 순으로

봉행됐다. 윌주 스님은 “이번에 발생한 용천참사로 망연자실해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용천지역 어린이 학생들의 보급자리를 만드는 용천소학교 건립에

아차산 영화사서 희생자 위령제
소학교 건립기금 모금 법회 열려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25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용천소학교 건립기금 모금을 7월 하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02) 3432-6770 김원우 기자



지구촌 공생회가 6월9일 영화사 대웅전에서 용천 소학교 건립기금 모금법회를 개최했다.

“스님! 공양미를 보내주세요”

끼니 거르는 어린이·청소년이 기다립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밥을 거르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사찰에 들어오는 공양미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고, 공양미를 본사로 보내주시면 결식아동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그들을 돕는 불교계 봉사단체에 전달해 드립니다. 또 후원자를 지정해 주시거나 지원 분야를 선정해 주시면 본사에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부대중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02) 722-4162

작은 정성 큰 기쁨 생필품·공양미 보시 이어져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에 생필품과 공양미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용인 대덕사주지 일하가 생필품 필요 양로원 및 고아원 추천을 요청했다. 일하 스님은 “매달 지정재물에 보시를 실천할 계획”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필요한 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덕사는 5월 한달 동안 용인지역 2곳에 생필품을 전달한 바 있으며, 6월에는 본사가 추천한 의정부 선재동자원에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안 마이산 탐사주지 왕선도 본사에 전북지역

역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추천을 요청했다. 총무 진성 스님은 “매달 사찰에 들어오는 공양미와 과일을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안양 묘혜심 보살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쌀 2가마를 본사에 보내왔다. 묘혜심 보살은 “매달 이웃을 위한 쌀을 보시 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사는 쌀 2가마를 실직한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서 생활하는 진수혁 학생에게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발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본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봉사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

현대불교와 좋은벗풍경소리가 함께 하는 ‘나눔의 손잡기’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찬불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불자님들 한 분 한 분의 정성은 미래의 부처님 되실 어린 불자들에게 ‘불성’을 가꾸어 주는 참된 불사가 될 것입니다.

◀ 어떻게 참여하나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1구좌 1만원입니다.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어떻게 진행되나

▷매주 캠페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매달 한번씩 동참자 명단을 게재합니다.
▷아름다운 사연을 본지에 지속적으로 소개.

※ 온라인구좌 / 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 / 좋은벗 풍경소리 02) 723-9836

